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워회 2017 청렴 사연·수기 공모전
일반부문 입선　6살, 정직은 알아요.

“엄마, 양심이 뭐예요?”
유치원을 옮기면서, 걱정과는 달리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하는 아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선생님께 너무 고마워서 보답하고 싶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된다, 안된다.’ 학부모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였지만 ‘음료수쯤이야.’ 하고 보냈던 것이 되돌아왔다. 아들은 선생님이 양심상 받지 않고, 엄마 것이라고 가방에 담아줬다고 했다.

“서준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거짓말을 하면 돼? 안돼? 자기가 한 일을 사실대로 말하지?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마음이야.” 아이는 정직이라는 말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어머님, 음료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받으면 다른 아이들에게 사랑을 골고루 나눠주지 못할 것 같아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음료수와 함께 담긴 선생님의 메모는 그 어떠한 설명보다도 명쾌한 답변이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아들의 실내화를 사기 위해 함께 대형마트에 갔다. PVC재질의 하얀색 실내화를 이것저것 골라보다가 마음에 드는 것으로 신겨보았다. 실내화는 신축성 있는 끈으로 양쪽이 서로 묶여있었는데, 그것을 깜빡 잊고 걸음을 걷게 해보는 순간 재질이 얇은 실내화가 찢어져 버렸다. 황급히 아들의 발에서 실내화를 벗겨냈다. 그리고 누가 보지는 않았는지, 주변을 살피며 그것을 비닐봉지에 다시 담아 진열장 속에 넣어두고, 같은 상품의 다른 실내화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엄마 나 찢어진 신발은 싫어요.”
“서준아, 그거 아니야. 다른 거야. 그리고, 조용히 해봐봐.”
“그런데, 엄마. 저 찢어진 신발은 누가 신을까? 응? 찢어진 신발은 누가 가져가?”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봐 걱정하는 나와는 달리, 천진난만한 아들은 큰소리로 말하며,
찢어진 실내화를 가져가게 될 사람을 걱정하고 있었다.

‘아이한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아이에게 설명도 못 하고 얼버무리고……’
내키진 않았지만, 찢어진 실내화를 다시 들었다. 아이는 찢어진 신발에 불만을 토해냈다. 우리

는 불편한 마음으로 계산대 앞에 섰고, 혹시나 하는 생각과 포기하는 심정으로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랬군요. 꼬마 손님. 아줌마가 예쁜 새 신발로 바꿔줄게.”
고맙게도, 찢어진 실내화는 불량 상품으로 수선을 위해 수거해가고 우리는 정상 상품으로 바꾸어 구매할 수 있었다.

“아빠, 우리가 정직하게 말해서 새 신발 줬어요. 찢어진 신발 아니에요.”

새신발에 기분이 좋은 아들은 아빠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했다. 만약, 내가 그 일을 무마해버렸다면, 아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 과연 내 마음은 편했을까?

몇 년 전의 일이 생각난다. 신혼 초에도 그랬지만, 아이를 낳고도 남편은 새벽 출근 한밤중 퇴근이었다. 맞벌이하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하고, 남편이 출근 하고 나면 아이 깨워서 씻기고 아침을 먹여 어린이집에 맡겨야 했다. 남편의 도움은 기대할 수도 없었고,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계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던 남편은 항상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었다. 청년실업에 관한 뉴스가 나올 때면 당사자들도 힘들겠지만, 남편은 더 답답해했다. 대기업을 선호하고, 여느 중소기업보다 급여가 높아도 건설현장에는 지원자조차 없었다. 그래서 학교 후배들을 불러오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일쑤였다. 낮에는 부족한 인력분에 대한 현장일을 하고, 밤에는 서류작업 등 잔업을 해야 했다.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혹시,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신분증 좀 빌려 쓸 수 없을까?”
밤 12시가 다 되어 퇴근한 남편이 술 한잔하면서 말을 건넸다.

‘이건 무슨 소리? 그렇지 않아도 개인정보 유출이네, 신분증 도용이네, 하는 무서운 세상에 신분증을 빌려달라니. 그것도 내 것이 아닌 내 부모님 것을?’ 놀라기 이전에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턱 막혔다.

남편 말인즉, 현장에 고용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체류 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서류상 지금 당장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일하고는 있는데, 급여 지급에서 문제가 생기니, 부모님을 현장 근로자로 내세워 서류를 대체하고, 급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준다는 것이었다. 뭔가 복잡해서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선뜻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단번에 알 것 같았다.

‘불법 체류? 뭐 이런 건가?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게다가 부모님 신분증을? 과연 부모님은 듣고 뭐라고 하실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잡한 내 심정을 눈치챘는지 남편이 한마디 더 거들었다.
“그리고, 서류상 180일 이상 일하면 부모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3개월인가 몇 개월인가, 못해도 8~90만원은 받을 수 있을 거야.”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뙤약볕 아래에서 쪼그리고 앉아 농사일하고 계신 부모님께 8~90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말이 60세지, 시골 어른들이 그렇듯 마르고 까만 얼굴에 깊이 팬 주름은 여느 70세 넘은 노인과 같았다. 그런 부모님께 아이가 아플 때마다 도움을 청하면서 용돈도 많이 못 드렸는데, 공돈이 생긴다니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잠깐만 빌릴 거야, 사방으로 인력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인부가 일하고 있는데, 일당은 줘야 할 것 아니야. 일을 시키고 그 돈을 줄 방법을 찾는 건데…….”

마음 한편이 찝찝하고 불안했지만, 남편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려보기로 했다. 예상대로 부모님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았다. 사실, 최대한 걱정을 줄여보고자, 외국인 근로자 이야기는 빼고 부모님 실업급여 타는 이야기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셨다. 평생 땅만 파셨던 분이었음에도 옳지 않은 일임을 직감하셨나 보다. 결국엔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을 설명하고, 사위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십사 설득하여, 연령이 해당이 되는 어머니(장모님)만 신분증을 빌려주시는 것으로 허락을 받았다.

‘일한 인부에게 급여를 주기 위함이야.’라며 공돈에 대한 욕심을 예쁘게 포장하고 나 자신을 합리화시켰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신분증을 빌려 간 후로 남편일이 조금은 나아졌는지보다, 신분증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외국인 근로자는 별일 없는지가 걱정이 되었다.

“무슨 일 없냐? 박 서방은 회사에 별일 없지?”
그날 이후 부모님의 안부 전화 횟수가 늘었다. 아니, 안부를 가장한 확인 전화였다. 나도 이런저런 생각에 불안한데, 당사자인 부모님 걱정은 안 봐도 알 것 같았다.

‘다른 인부를 구해보라고 할까? 하다못해, 부모님보고 가셔서 잔업이라도 해달라고 해야 하나? 그럼 진짜 일한 거니까, 괜찮잖아?’

많은 고민 속에서 보낸 2주가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밝은 얼굴로 이른 퇴근을 했다. 기분이

좋아 보여서 말을 꺼내려고 눈치를 살피는데, 남편이 먼저 인부가 구해졌다고 말을 꺼냈다.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학교 후배가 복학 전에 일을 좀 해주고, 그 사이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방학동안 학교 후배 몇 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장 인력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문제는 어머니 신분증이었다. 남편은 이왕 빌린 거 장모님께 한 푼이라도 드리고자,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하자고 했다.

“아니, 그거 안 받아도 되니까, 신분증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참고 있었던 부모님의 걱정과 내 생각을 이야기했다. 또한, 부끄럽지만 공돈에 혹했던 나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조용히 듣고 있던 남편은 충분히 공감이 된다며 다른 동료 이야기를 하나 했다. 그는 일당 노동일을 했던 대학생 조카를 근무 일수가 부족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게 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맞게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던 것이다.

남편은 그것처럼 하면 되겠구나 싶었지만, 본인도 한편으로는 자꾸 신경이 쓰였고, 그때 당시 동료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선 본인이 똑같은 일을 하려 했다며 겸연쩍어했다.

신분증을 돌려받은 부모님은 “이렇게 해결될 것을 조금 더 기다려볼 걸 그랬다. 잘했다. 잘했어.” 하며 안도해 하셨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며 뒤늦은 후회를 했던 부모님은 그제야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음료수를 받음과 동시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편애가 이뤄질 것 같아 음료수를 받지 않은 선생님처럼, 공정함을 위해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부정 앞에 갈등하는 것은, 그 행동이 잘못된 일임을 자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렴? 6살 아들은 알지 못한다.
양심? 6살 아들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한 것을 느낀다.
정직? 6살 아들은 안다. 또한, 그것이 옳고, 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안다.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청렴과 부정부패는 작은 음료수가 편애와 촌지로 발전하듯 일상생활 어느 곳에서나 접할 수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양심이 있고, 6살 어린 아이도 아는 정직함만 있다면, ‘청렴’이라는 거창한 단어가 아니라도, 잘못된 내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